

45년 전 광주 참상 지켜본 그 날의 그 장소

후손들이 지키고 보존해야 할 우리의 역사이길...



① 5·18민주광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장소로 당시에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차량들이 회전하며 운행했으나 지금은 광장으로 바뀌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은 분수대를 연단으로 집회를 열었다.

② 전남대학교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찬연히 빛나는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정문이 현재 모습으로 바뀌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이 확대됐고 18일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전남대학교 정문 앞으로 모여들어 노래와 구호로 항의하던 200여명의 학생들은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해산됐다.

③ 상무관은 전남도경찰청 소속 경찰들과 전남도유도회 체육관으로 사용됐다. 지금은 복원 공사중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주검을 임시 안치했던 곳이다.

④ 금남로는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유일 격렬하게 저항했던 항쟁의 거리로 당시에는 총금지하상이 공사가 한창이었다. 5·18민주화운동 대표 항쟁 거리로 계엄군에 맞서 저항했던 상징적 자리다.

⑤ 구묘역(망월묘역)은 1980년 5월 당시 산화한 영령들이 묻혔던 곳으로 '망월동묘지'라고 불려왔다.

⑥ 옛 전남도청은 5·18민주화운동 본부가 있던 곳이고,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 수많은 시민군이 산화한 곳으로 현재 복원 공사중이라 기림막이 쳐져있다.

